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According to Family Life Cycle, Time Use of Employed
Husbands and their Wives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교 수 이 기 영
박사과정 이 승 미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Ki Young Lee

Doctoral course : Seung Mie Lee

〈 목 차 〉

I. 문제제기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 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ime use in employed husbands and their wives according to family life cycle. Data for 284 couples were gathered from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ime diar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family life cycle had effected on the time use of wives. According to the family life cycle, the time use of the unemployed wives changed remarkably. That is to say, the housework time of the unemployed wives decreased after increasing to the second stage, but the social-cultural time of those changed to the contrary.

(2) The family life cycle affected only the husbands' housework time on the weekend, but wasn't the important effect of time use in case of the employed husbands.

I. 문제제기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보편적 자원으로서 타인과의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가의 여부는 생활의 질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각에 의해 생활이 규정되는 산업사회에서 시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시간을 생활시간영역 -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 또는 개인이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즉 일이나 직업과 관련된 일인가, 미래세대의 양육인가,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의 추구인가 등과 같은 가치¹⁾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생활시간의 사용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선 일차적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체계, 그 시대의 기술문화수준, 생활방식 등에 의해 시간 사용이 규정되지만, 이와 더불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인 각 개인의 특성 - 성별, 취업여부와 직업유형 또는 직업지위, 학력, 성역할태도 등 - 과 개인이 속해있는 가족특성 - 가족형태, 자녀의 수와 연령, 소득수준 등 - 에 따라 생활시간의 배분은 다양한 양상을 띤다. 이 중에서 기혼의 경우 각 개인의 생활시간 배분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별로서 남편과 아내는 그 시간구조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여부와 직업 지위로 특히 부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이 자신의 생활시간 사용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원의 시간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가족구성과 관련된 요인 중 자녀의 유무와 연령은 가족원의 일생을 통한 종단적인 측면에서의 시간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족원의 시간을 요구하게 되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신체적 보호의 요구는 감소하는 반면 비신체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고 자녀를 통해 사회환경과의 상호관계가 증가하는 등 자녀양육의 부담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

히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자녀가 가족의 중심인물로 부각되고 아동심리전문가들의 아동발달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와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적 경험에 대한 배려와 충고에 따라(Ehrenreich & English, 1978)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중 자녀양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확대가족 속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용이했던 과거와 달리 핵가족내에서의 자녀양육이란 여성에게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자녀양육의 부담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의 형성에서 확대·발전,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종단적 측면에서 가정생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생활시간을 통해 잘 반영된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Walker & Woods, 1976; Pleck, 1985; 임정빈, 1981; 한경미, 1987, 1991; 임정빈·임해경, 1992)에서는 가정생활주기나 이를 대신한 막내 자녀의 연령이 주부나 가족원의 가사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만 관심을 가질뿐, 다른 생활시간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별과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부부의 생활시간 배분은 가정생활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생활주기별로 부부의 생활시간 배분을 분석함으로써 일생을 통해 어떤 시기가 자녀로 인해 부과되는 시간의 요구가 많으며 이것이 다른 생활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며, 나아가서 노동력 소비와 재생산의 균형문제, 그리고 남녀평등의 관점에서의 시간배분의 균형문제를 가정생활주기별로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보다 균형있는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과 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생활주기의 개념

가정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란 인간의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미혼·결혼·출산·육아·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은 결혼으로 '형성'되고 자녀의 출산으로 '발전·확대'되

다가 자녀의 결혼·분가로 '축소'되면서, 사망으로 가족생활의 일주기는 막을 내린다(유영주, 1984). 이러한 전형적인 가정생활주기는 모든 가족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특히 가족의 제한된 자원하에서 가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사용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가정관리에 있어서 가족의 일생주기를 통한 자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가족의 자원사용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가정생활주기는 일반적으로 결혼지속년수, 딸자녀의 출생과 같은 가정의 획기적인 사건의 발생시기, 자녀의 연령과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장의 연령, 결혼상태 등 여러 요인 중에서 하나 혹은 둘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된다(김외숙 외, 1990).

Olson 등(1983)은 자녀의 연령과 가정내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가정생활주기를 ① 자녀가 없는 신혼기부부 ② 미취학자녀를 가진 가족 ③ 취학자녀를 가진 가족 ④ 청소년자녀를 가진 가족 ⑤ 진수기가족 ⑥ 빈보금자리가족 ⑦ 은퇴기가족의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유영주(1984)는 딸자녀의 성장을 기준으로 ① 형성기 ② 자녀출산 및 양육기 ③ 자녀교육기 ④ 자녀성년기 ⑤ 자녀결혼기 ⑥ 노년기로 구분하고 있고, 공세권 외 4인(1987)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출산, 결혼, 배우자의 사망 등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① 형성기 ② 확대기 ③ 확대완료기 ④ 축소기 ⑤ 축소완료기 ⑥ 해체기의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생활주기의 단계 구분은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가정생활주기를 중심으로 가정내 저축행동, 소비문제나 가족관계 문제 등을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조희금, 1984; 이경희, 1988; 홍향숙, 1989; 남영주, 1994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첫자녀의 성장단계를 기준으로 구분한 유영주(1984)의 가정생활주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첫자녀의 연령변화가 가족에 대한 요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Olson 외, 1983). 그러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에서는 둘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자녀의 시간에 대한 요구가 더 크기 때문에 첫자녀보다는 막내자녀

의 연령변화를 중심으로 가정생활주기를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성장에 따른 요구의 변화에 의해 부모의 생활시간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유부와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정생활주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3세가 되기까지는 신체적 돌보기에의 요구가 많고 그 이후에는 신체적 돌보기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고 비신체적 돌보기에의 요구가 증가하므로 3세를 기준으로 (Ⅱ)단계와 (Ⅲ)단계를 구분하고자 하며,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은퇴하기 이전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막내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부모에 대한 시간의 요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한 단계로 묶고자 한다.

(Ⅰ) 단계 : 결혼부터 첫자녀 출생전까지

(Ⅱ) 단계 : 막내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인 경우

(Ⅲ) 단계 : 막내자녀의 연령이 3세 이상 취학전까지

(Ⅳ) 단계 : 막내자녀가 국민학생인 경우

(Ⅴ) 단계 : 막내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2. 가정생활주기와 생활시간

가정학의 생활시간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학, 사회학, 노동정책 등 다른 인접분야의 연구성과나 방법을 받아들여 그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관리학적인 독자적 관점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가정학적 관점의 독자성을 노동력의 소비와 노동력재생산의 균형문제,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른 부인과 남편의 시간구조상의 평등문제(이기영 외, 1994)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가정생활주기의 관점을 부가하여 종단적인 측면에서 부부의 생활시간 배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가정내 노동력재생산의 양상은 더 잘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생활주기의 관점에서 생활시간을 분석하는 것은, 자녀가 생기고 성장함에 따라 부부 자신의 매일의 직접적인 노동력 재생산에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자녀양육이 부과됨으로써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며, 이에 의해 초래된 가족원의 노동력소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는 시간자원의 특성에 의해 다른 생활시간에 대한 배분의 조정을 유발하므로 노동력 재생산과 소비간의 균형문제를 가정생활주기를 통해 종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생활주기보다 자녀돌보기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생활주기에 있어서 이것이 부인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함께 남편의 생활시간구조 특히 가사노동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정도가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생활시간 구조에서 드러난 남녀평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가정생활주기와 관련된 시간연구를 살펴보면 생활시간 전체를 다룬 연구와 주로 가사노동시간에 국한하여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생활시간의 변화를 다룬 연구로는 1980년 '도시 근로자부부의 생활시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부부의 생활시간을 가정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伊藤セツ 등(1983)의 연구와 취업주부만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을 다룬 연구(한경미, 1991)가 있다. 먼저 伊藤セツ 등(1983)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여부와 근무형태 - 전일제와 시간제 - 에 따라 남편과 부인을 6집단으로 구분하고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정생활주기를 ① 자녀가 없는 경우, ② 막내자녀 3세미만, ③ 막내자녀 3세 이상 취학전, ④ 막내자녀 국민학생, ⑤ 막내자녀 중학생이상으로 구분하여 부부의 생활시간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주부의 경우 취업여부와 근무형태에 따라 가사노동시간량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세집단 모두 자녀의 출산과 함께 2-3시간 가량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다가 자녀의 성장과 함께 다시 감소하는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였으며, 막내자녀가 3세미만인 단계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의 35-45%를 자녀양육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생활시간 영역 -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 에도 영향을 미쳐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편의 생활시간

을 분석한 결과 가사노동시간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기는 하나 전체 생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가정생활주기가 평일의 남편의 전체 생활시간을 규정하는 요인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한경미(1991)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 대신 막내자녀의 연령을 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생리적 시간, 가사노동시간, 직업노동시간, 여가시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은 막내자녀의 연령이 1세미만인 경우 가장 길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사노동시간만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체로 가정생활주기 대신 막내자녀의 연령을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인 Walker와 Woods(1976)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을 ① 만1세 미만, ② 1세, ③ 2-5세, ④ 6-11세, ⑤ 12-17세로 구분하여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부인의 경우에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남편에게 있어서는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나 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시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임정빈, 1981; 한경미, 1987; 임정빈·임혜경, 1992; Hafstrom & Schram, 1983; J. pleck, 1985)에서도 막내자녀의 연령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동력재생산의 관점과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 근로자가정부부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이는 다른 생활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이는 다른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 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며 남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인이 취업한 경우와 취업하지 않은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자녀의 유무와 막내자녀의 연령변화를 반영하는 가정생활주기가 가사노동시간과 다른 생활시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를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생활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은퇴여부를 통제하기 위해 남편이 은퇴하기 이전의 부부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이기영외 3인; 1994)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와 자료를 이용하여, 회수된 330쌍 중 부실기재된 경우를 제외한 284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의 분류는 앞서의 연구와 동일하게 구성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구 분	빈 도(%)	변 인	구 분	빈 도(%)
남편의 연 령	29세 이하	44 (16)	부인의 연 령	29세 이하	91 (32)
	30 - 39세	135 (48)		30 - 39세	113 (40)
	40 - 49세	54 (19)		40 - 49세	53 (19)
	50세 이상	47 (17)		50세 이상	24 (9)
	계	280(100)		계	281(100)
남편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65 (23)	부인의 교육수	고졸 이하	120 (42)
	초급대졸	23 (8)		초급대졸	32 (11)
	대졸이상	191 (69)		대졸이상	132 (47)
	계	279(100)		계	284(100)
남편의 직업유형	전문관리직	128 (46)	부인의 직업유형	주 부	142(50)
	사무기술직	86 (31)		전문관리직	26 (9)
	자영업자	44 (16)		사무기술직	61 (22)
	생산서비스직	12 (4)		자영업자	26 (9)
	기 타	10 (3)		생산서비스직	13 (5)
	계	280(100)		기 타	15 (5)
가족생활 주 기	자녀가 없는경우	44 (17)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56 (22)
	막내자녀2세이하	72 (27)		101-150만원	75 (29)
	3세이상-취학전	45 (17)		151-200만원	43 (17)
	국민학생인 경우	40 (15)		201-250만원	38 (15)
	중학생인 경우	66 (25)		251만원 이상	49 (19)
	계	267(100)		계	261(100)
가족형태	확대가족	57 (20)	자녀수	자녀가 없는경우	44(16)
	핵가족	224 (80)		1명	72(27)
	계	281(100)		2명	115(42)
				3명 이상	40(15)
		계		271(100)	

였다.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각 생활시간영역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빈도분포를, 그리고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절차는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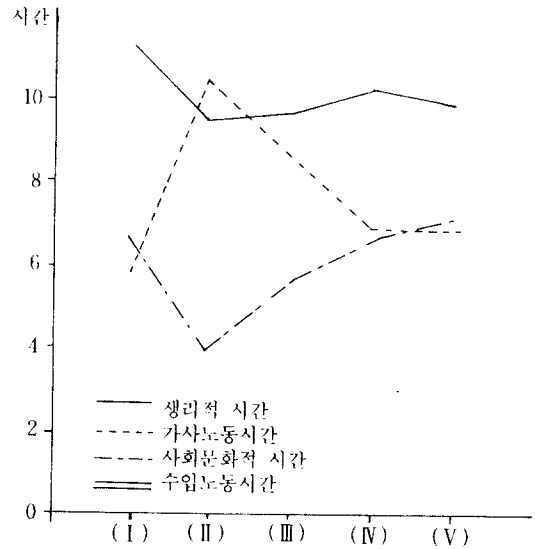
IV. 결과 및 논의

1. 부인의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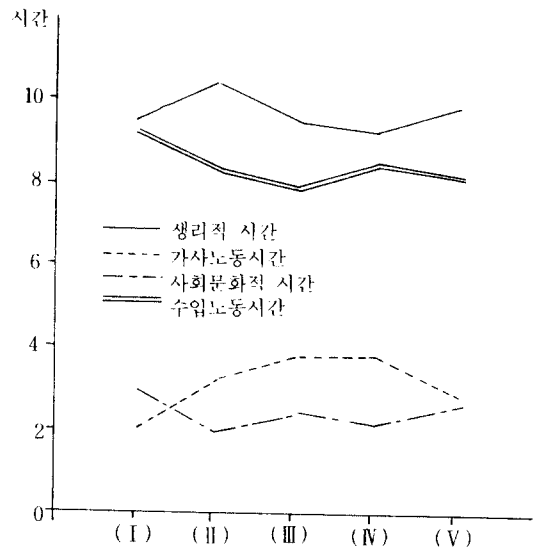
(1)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부인의 생활시간의 배분 가족을 형성한 이후 자녀의 출산, 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주부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평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1>, <그림 2>에서와 같이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먼저 전업주부는 가정생활주기 전반에 걸쳐 일정 수준의 생리적 시간을 확보한 가운데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 양자가 대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출산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사회문화적 시간은 대조적으로 감소하며, 자녀연령의 상승과 함께 다시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사회문화적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취업주부는 하루의 2/3이상을 일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생리적 시간과 수입노동시간에 할애하고 있으며,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은 전업주부와 같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가정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의해 전반적으로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그리고 사회문화적 시간이 가사노동시간과는 대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요일의 경우는 <표 2>에서와 같이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 없이 두 집단 모두 가정생활주기 전반에 걸쳐 평일보다 증가된 생리적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은 평일의 전업주부의 경우보다 그 변화의 폭은 다소 완만하지만 두 집단 모두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양자가 대조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다음에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부인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보다



<그림 1>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전업주부의 평일의 생활시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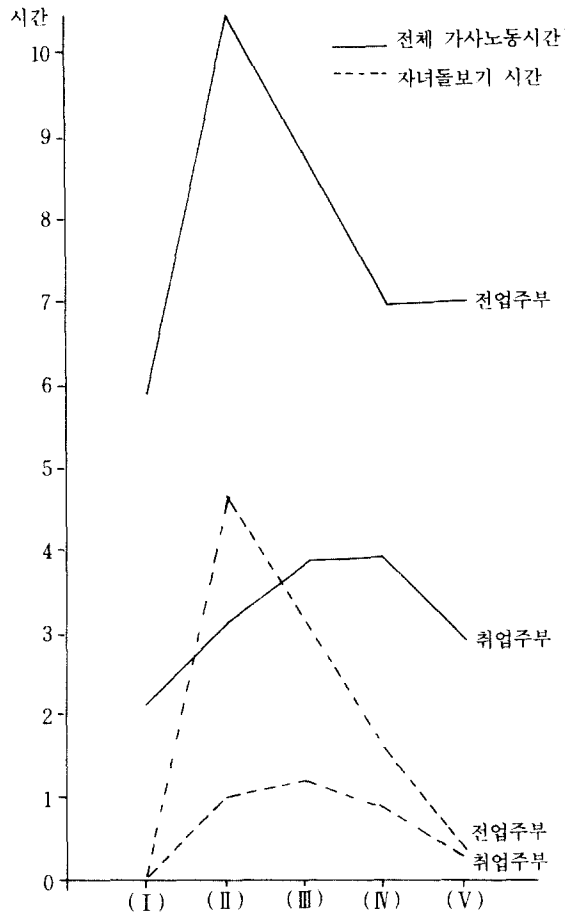
<그림 2>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취업주부의 평일의 생활시간구조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네가지 생활시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사노동시간

다음세대의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하여 가정생활주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표 2>, <그림 3>에서와 같이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의 출산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변화의 양상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전업주부의 경우 (Ⅰ)단계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이 5시간 52분인데 비해 (Ⅱ)단계에서는 10시간 29분으로 무려 4시간 30분이상의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다가 (Ⅲ), (Ⅳ), (Ⅴ)단계로 갈수록 감소하여 (Ⅴ)단계에서는 7시간 정도의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급격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자녀의 출산과 함께 (Ⅲ)단계까지 완만히 증가하여 (Ⅳ)단계까지 계속되다가 (Ⅴ)단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변화의 폭도 전업주부에 비해 상당히 완만한 편이다.

한편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는 자녀양육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더 잘 파악될 수 있다. 자녀양육시간은 자녀의 출산과 함께 늘어나 전업주부는 (Ⅱ)단계에서 가장 많은 4시간 40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막내자녀의 성장과 함께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주부는 (Ⅲ)단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Ⅳ), (Ⅴ)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취업주부의 자녀돌보기시간은 (Ⅱ)단계에서 1시간, (Ⅲ)단계에서는 1시간 19분으로 전업주부보다 훨씬 적는데, 이는 취업주부가 자녀양육을 여러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조력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주부의 취업여부와 가족형태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핵가족(464분)보다 확대가족(539분)일 때 주부가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데 반해,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핵가족(233분)보다 확대가족



<그림 3>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부인의 평일의 가사노동시간

(188분)인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나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확대가족에 의한 가족수의 증가가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요인으로 작용함에 비해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인적자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조력여부에 따른 취업주부의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표 4>에서와 같이 시모 혹은 친정모, 또는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적었다. 또한 조력여부와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시모나 친정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Ⅱ)단계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Ⅰ), (Ⅱ)단

〈표 2〉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부인의 생활시간구조

(평 일)

(단위 : 시간, 분) (전업주부 : 125쌍, 취업주부 : 142쌍)

생활 내용			(Ⅰ)		(Ⅱ)		(Ⅲ)		(Ⅳ)		(Ⅴ)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생리적 시간	수면		8.19	6.55	7.30	7.37	7.00	7.03	7.25	6.59	6.55	7.30
	식사		1.27	1.26	1.18	1.30	1.27	1.25	1.31	1.25	1.21	1.17
	몸단장		.52	1.05	.25	.55	.52	.54	.56	.52	1.08	1.03
	의료		.00	.02	.00	.00	.03	.00	.00	.03	.05	.00
	휴식		.47	.07	.19	.15	.21	.15	.15	.08	.28	.09
	소계		11.25	9.35	9.32	10.17	9.43	9.37	10.07	9.27	9.57	9.59
수업노동	근무		.00	7.33	.00	6.54	.00	5.51	.00	7.12	.00	7.15
	집에서 일함		.00	.02	.00	.17	.00	1.02	.00	.27	.00	.02
	통근		.00	1.41	.00	1.15	.00	1.08	.00	.53	.00	.52
	소계		.00	9.16	.00	8.26	.00	8.01	.00	8.32	.00	8.09
가사노동 시간	식사준비		1.53	.44	1.52	.54	1.59	1.04	1.37	1.15	2.05	.58
	설거지		.39	.15	.39	.13	.34	.19	.29	.20	.39	.24
	청소		1.11	.29	1.11	.31	1.06	.29	1.25	.23	1.11	.33
	세탁		.49	.13	.56	.12	.39	.15	.22	.20	.54	.14
	시장보기		.57	.10	.46	.12	.57	.10	.52	.20	1.11	.15
	신체적돌보기		.00	.00	2.53	.41	.44	.11	.04	.01	.04	.00
	비신체적돌보기		.00	.00	1.47	.19	2.21	1.08	1.32	.50	.23	.20
	가족원돌보기		.18	.11	.13	.06	.16	.08	.09	.16	.18	.07
가정관리		.05	.05	.12	.05	.04	.05	.29	.07	.15	.08	
	소계		5.52	2.07	10.29	3.13	8.40	3.49	6.59	3.52	7.00	2.59
전체 노동시간			5.52	11.23	10.29	11.39	8.40	11.50	6.59	12.24	7.00	11.07
사회문화적 시간	교양·연수		.15	1.06	.01	.06	.22	.28	.24	.03	.22	.29
	독서		.45	.07	.35	.12	.32	.10	.23	.18	.29	.04
	신문		.07	.06	.07	.02	.11	.05	.19	.09	.16	.06
	TV·라디오		2.44	.58	2.13	1.01	2.39	.51	1.38	1.03	2.10	1.08
	가족단란		.29	.15	.26	.15	.12	.17	.45	.20	.22	.12
	취미		.34	.07	.00	.00	.20	.02	.02	.01	.11	.12
	운동·산책		.09	.04	.02	.06	.22	.04	.18	.02	.43	.16
	오락		.00	.00	.00	.02	.00	.00	.00	.00	.00	.02
	교제		1.38	.09	.28	.17	.53	.12	2.23	.03	1.40	.14
	사회활동		.00	.00	.00	.00	.03	.00	.00	.01	.05	.03
종교활동		.02	.10	.05	.01	.00	.23	.42	.07	.41	.04	
기타		.00	.00	.02	.02	.03	.01	.00	.02	.04	.03	
	소계		6.43	3.02	3.59	2.04	5.37	2.33	6.54	2.09	7.03	2.53
합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표 2〉 계속

(일요일)

(단위 : 시간. 분) (전업주부 : 125쌍, 취업주부 : 142쌍)

생활 내용			(I)		(II)		(III)		(IV)		(V)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생리적 시간	수면		9.54	9.11	8.56	9.11	8.04	8.43	8.32	8.31	7.50	8.26
	식사		1.30	1.14	1.18	1.30	1.42	1.21	1.29	1.33	1.24	1.24
	몸단장		.55	1.11	.48	.51	.42	1.00	.44	.58	.56	.57
	의료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휴식		.22	.16	.23	.21	.26	.18	.19	.24	.19	.14
	소계		12.47	11.52	11.25	11.53	10.54	11.22	11.04	11.26	10.29	11.01
수입노동	근무		.00	.04	.00	.11	.00	1.01	.00	.15	.00	1.01
	집에서 일함		.00	.04	.00	.01	.00	.03	.00	.13	.00	.00
	통근		.00	.02	.00	.01	.00	.08	.00	.01	.00	.08
	소계		.00	.10	.00	.13	.00	1.12	.00	.29	.00	1.09
가사노동 시간	식사준비		1.06	1.23	1.20	1.13	1.44	1.18	1.45	1.35	1.54	1.22
	설거지		.12	.21	.30	.32	.46	.26	.32	.30	.37	.36
	청소		.37	.55	.44	.43	.49	.36	.58	1.08	.50	1.02
	세탁		.18	.38	.21	.33	.29	.40	.37	.48	.26	.43
	시장보기		1.21	.43	.36	.47	.39	.43	1.05	.35	.51	.52
	신체적돌보기		.00	.00	1.40	1.17	.33	.09	.03	.00	.03	.08
	비신체적돌보기		.00	.00	.42	.34	.50	1.05	.46	.40	.13	.05
	가족원돌보기		.02	.06	.02	.02	.04	.00	.01	.06	.06	.01
	가정관리		.07	.03	.04	.03	.11	.06	.18	.06	.12	.10
	소계		3.43	4.09	5.59	5.44	6.05	5.03	6.05	5.28	5.12	4.59
전체 노동시간			3.43	4.19	5.59	5.57	6.05	6.15	6.05	5.57	5.12	6.08
사회문화적 시간	교양연수		.00	.26	.00	.10	.07	.06	.00	.15	.01	.05
	독서		.22	.08	.12	.09	.14	.16	.14	.18	.12	.14
	신문		.00	.02	.05	.00	.08	.04	.06	.07	.11	.07
	TV·라디오		2.48	2.46	2.45	2.15	2.44	2.00	2.24	2.33	2.38	2.26
	가족단란		.42	.20	.19	.18	.43	.28	.22	.31	.34	.31
	취미		.00	.08	.05	.17	.00	.00	.02	.03	.00	.18
	운동·산책		.22	.40	.20	.19	1.02	.49	.59	.15	1.16	.31
	오락		.37	.07	.10	.07	.00	.12	.45	.15	.16	.00
	교제		1.46	2.05	1.37	1.35	.59	.49	.10	.42	1.29	1.28
	사회활동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
	종교활동		.48	1.07	1.03	1.00	.43	1.39	1.49	1.37	1.38	.56
기타		.05	.00	.00	.00	.10	.00	.00	.01	.04	.04	
	소계		7.30	7.49	6.36	6.10	7.01	6.23	6.51	6.37	8.19	6.51
합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표 3〉 가정생활주기와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남편의 생활시간구조

(평 일)

(단위 : 시간, 분) (전업주부 : 125쌍, 취업주부 : 142쌍)

생활 내용		(Ⅰ)		(Ⅱ)		(Ⅲ)		(Ⅳ)		(Ⅴ)	
		전	취	전	취	전	취	전	취	전	취
생리 적 시간	수면	7.28	7.04	7.56	7.12	7.18	7.11	7.47	7.31	7.27	7.00
	식사	1.51	1.37	1.29	1.43	1.28	1.22	1.27	1.37	1.40	1.33
	몸단장	.49	.47	.39	.49	.37	.39	.55	.40	.52	.54
	의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휴식	.25	.05	.15	.13	.05	.12	.19	.13	.10	.08
	소계	10.33	9.33	10.19	9.57	9.28	9.24	10.28	10.02	10.09	9.35
수입 노동	근무	8.40	9.26	8.49	9.14	9.54	9.36	8.49	9.08	8.34	9.16
	집에서 일함	.00	.02	.02	.09	.03	.00	.00	.08	.12	.00
	노동	1.45	1.47	1.36	2.17	1.55	1.37	1.18	1.51	1.31	1.23
	소계	10.25	11.15	10.27	11.40	11.52	11.13	10.07	11.08	10.17	10.39
가사 노동 시간	식사준비	.00	.02	.00	.02	.00	.01	.13	.00	.00	.00
	설거지	.03	.02	.00	.00	.00	.02	.00	.01	.01	.00
	청소	.04	.07	.03	.05	.02	.07	.00	.05	.09	.07
	세탁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시장보기	.08	.03	.00	.00	.00	.01	.00	.03	.01	.01
	신체적돌보기	.00	.00	.11	.06	.06	.02	.05	.01	.00	.00
	미신체적돌보기	.00	.00	.10	.09	.10	.07	.02	.05	.07	.13
	가족원돌보기	.00	.01	.00	.00	.00	.01	.00	.00	.00	.00
	가정관리	.03	.01	.00	.01	.03	.00	.02	.02	.01	.00
소계	.18	.19	.24	.23	.21	.21	.22	.19	.19	.21	
전체 노동시간		10.43	11.34	10.51	12.03	12.13	11.34	10.29	11.27	10.36	11.00
사회 문화 적 시간	교양·연수	.14	.17	.09	.09	.20	.17	.06	.11	.16	.07
	독서	.18	.16	.08	.11	.08	.24	.21	.17	.14	.19
	신문	.14	.07	.13	.13	.09	.11	.16	.20	.17	.12
	TV·라디오	1.28	1.02	1.27	1.00	.54	1.09	1.16	1.02	1.17	.53
	가족단란	.10	.15	.24	.04	.14	.15	.12	.12	.18	.16
	취미	.01	.00	.00	.00	.07	.01	.06	.04	.04	.09
	운동·산책	.13	.06	.09	.08	.16	.12	.12	.18	.21	.16
	오락	.00	.01	.00	.06	.00	.07	.07	.03	.03	.03
	교체	.01	.30	.18	.09	.07	.18	.27	.02	.17	.59
	사회활동	.00	.10	.00	.00	.00	.00	.00	.00	.00	.00
	종교활동	.00	.09	.02	.00	.00	.06	.00	.03	.03	.06
기타	.05	.00	.00	.00	.03	.00	.00	.01	.05	.05	
소계	2.44	2.53	2.50	2.00	2.19	3.02	3.03	2.33	3.15	3.25	
합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표 3) 계속

(일요일)

(단위 : 시간, 분) (전업주부 : 125쌍, 취업주부 : 142쌍)

생활 내용			(I)		(II)		(III)		(IV)		(V)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전업	취업
생리적 시간	수면		9.51	9.22	9.49	9.23	8.32	9.22	9.02	8.47	8.22	8.37
	식사	사	1.25	1.27	1.16	1.27	1.41	1.25	1.16	1.29	1.30	1.25
	몸단장	단 장	.36	1.02	.57	.55	.58	.47	1.12	.58	1.03	.58
	의료	료	.00	.00	.00	.00	.00	.00	.03	.00	.00	.00
	휴식	식	.16	.17	.15	.18	.24	.33	.26	.22	.26	.17
소 계			12.08	12.08	12.16	12.03	11.35	12.07	11.59	11.36	11.21	11.17
수입노동	근무	무	.25	.38	.30	.34	.57	.28	.38	.51	1.08	0.39
	집에서 일함	일 함	.13	.05	.06	.16	.00	.12	.04	.23	.35	.17
	통근	근	.05	.06	.04	.06	.23	.05	.03	.08	.12	.14
소 계			.43	.49	.40	.56	1.20	.45	.45	1.22	1.55	1.10
가사노동 시간	식사준비	비	.05	.18	.05	.03	.03	.08	.02	.07	.12	.07
	설거지	지	.03	.08	.01	.03	.01	.02	.02	.00	.03	.02
	청소	소	.25	.41	.17	.23	.19	.26	.19	.41	.37	.44
	세탁	탁	.03	.07	.03	.02	.00	.02	.02	.14	.04	.00
	시장보기	기	.33	.30	.22	.35	.46	.28	.43	.25	.22	.50
	신체적돌보기	기	.00	.00	.29	.32	.05	.05	.00	.00	.00	.00
	비신체적돌보기	기	.00	.00	.31	.46	.23	1.00	.24	.34	.06	.15
	가족원돌보기	기	.00	.06	.00	.00	.00	.00	.00	.01	.03	.00
	가정관리	리	.02	.07	.00	.01	.09	.02	.15	.02	.03	.02
소 계			1.11	1.57	1.48	2.25	1.46	2.13	1.47	2.04	1.30	2.00
전체 노동시간			1.54	2.46	2.28	3.21	3.06	2.58	2.32	3.24	3.25	3.10
사회문화적 시간	교양·연수	수	.33	.19	.01	.00	.31	.25	.02	.05	.02	.00
	독서	서	.25	.22	.26	.36	.16	.22	.17	.43	.20	.28
	신문	문	.16	.08	.16	.13	.25	.20	.28	.25	.22	.16
	TV·라디오	오	3.33	3.30	4.26	2.48	3.53	3.28	3.35	3.41	2.41	2.23
	가족단란	란	.43	.19	.19	.22	.57	.38	.29	.58	.33	.42
	취미	미	.03	.14	.08	.22	.03	.00	.05	.00	.02	.09
	운동·산책	책	.30	.42	.49	.43	2.13	.46	1.14	1.26	2.27	.57
	오락	락	.58	.20	.15	.13	.00	.16	.48	.24	.24	.12
	교제	제	2.11	1.56	1.43	2.35	.38	.56	1.18	.41	1.08	2.57
	사회활동	동	.05	.00	.00	.00	.00	.00	.00	.00	.02	.28
	종교활동	동	.33	1.16	.52	.40	.21	1.43	1.01	.33	1.12	1.01
기타	타	.10	.00	.01	.04	.02	.01	.04	.02	.01	.00	
소 계			9.58	9.06	9.16	8.36	9.19	8.55	9.29	8.58	9.14	9.33
합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표 4〉 취업주부의 조력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평균, 단위: 분, %) (N: 142)

조력자 유형	조력유무	가정생활주기 단계					평균	t값
		(Ⅰ)	(Ⅱ)	(Ⅲ)	(Ⅳ)	(Ⅴ)		
시모·친정모	유	110(18)	164(48)	217(24)	223(35)	175(11)	177(30)	2.63**
	무	162(82)	283(52)	250(76)	286(65)	217(89)	233(70)	
남편	유	140(59)	156(44)	188(20)	271(27)	263(32)	180(38)	3.07**
	무	175(41)	277(56)	255(80)	262(93)	190(68)	240(62)	

계에서 다른 단계보다 많았으며, 조력유무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요구가 많은 (Ⅱ)단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취업주부 중에서도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조력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업주부는 자녀양육에의 요구가 가장 큰 (Ⅱ)단계에서 자녀돌보기시간이 가장 길데 반해 취업주부는 (Ⅲ)단계에서 가장 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Ⅲ)단계에서 비신체적 요구가 신체적 요구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 볼때, 취업주부는 자녀양육을 타인에게 위임하기는 해도 비신체적 돌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녀양육시간이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가 전체 가사노동시간의 변화양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여,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막내자녀의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Walker & Woods, 1976: 伊藤セツ외, 1983: 한경미, 1987, 1991)와 일치하나 막내자녀의 연령이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3) 수입노동시간

취업주부의 평일 수입노동시간은 〈그림 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가 없는 (Ⅰ)단계에서부터 (Ⅱ), (Ⅲ)단계로 갈수록 감소하여, 막내자녀가 3세 이상 취학전인 (Ⅲ)단계에서 8시간 1분으로 가장 낮다가 자녀의 취학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변화양상은 수입노동시간의 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여 (Ⅲ)단계에서 전체 수입노동시

간의 감소보다 근무시간의 감소가 급격하며, 이에 비해 가정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수입을 위한 노동을 하는 경우는 다른 생활주기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은 가정생활주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녀양육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생리적 시간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평일의 생리적시간은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나 대체로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업주부의 경우는 자녀의 출산과 함께 생리적 시간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자녀의 성장과 함께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취업주부의 경우는 (Ⅱ)단계에서 생리적 시간이 오히려 증가하여 다른 생활주기보다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량을 비교하면 (Ⅱ)단계에서 전업주부의 생리적 시간이 취업주부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부영역을 볼 때 특히 몸단장시간이 전업주부에게 있어 짧기 때문이다. 즉 전업주부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가사노동에 할애하므로 몸단장시간까지 제약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리적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면시간에 관해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자녀가 없는 (Ⅰ)단계를 제외하면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막내자녀의 연령이 가장 낮은 (Ⅱ)단계의 수면시간이 다른 생활주기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자신의 수면시간 변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따른 피로가, 전업주부의 경우

에는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한 가사노동의 과중한 부담에 의한 피로가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과중해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일요일의 생리적 시간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뚜렷한 변화없이 평일 보다 1-2시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수면시간은 평일과 같이 자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막내자녀의 연령이 가장 어린 (Ⅱ)단계에서 가장 길어 9시간 내외의 수면시간을 취하고 있다. 또한 (Ⅰ), (Ⅲ)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는 대체로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의 수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이중역할에 따른 피로를 휴일에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문화적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은 평일의 경우 <그림 1>, <그림 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Ⅰ)단계에 비해 (Ⅱ)단계에서 사회문화적 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여 전업주부는 3시간 59분을, 취업주부는 2시간 4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시간의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사회문화적 시간의 변화를 보면 전업주부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만, 취업주부는 완만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시간의 탄력적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서, 전업주부는 시간이 주어지면 사회문화적 시간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취업주부는 우선 필수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다른 생활시간에 의해 사회문화적 시간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문화적 시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Ⅱ)단계에서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TV·라디오에 할애하는 시간이 전체 사회문화적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주부에 비해 사회문화적 시간이 2배 정도 많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TV 외에는 독서, 가족단란, 교제 등에만 어느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문화적 시간이 7시간 3분으로 가장 긴 (Ⅴ)단계에서 전업주부는 교양·연수, 취미, 운동·산책과 같은 적극적 여가활동에 각각 22분, 11분, 43분 정도만을 할애하는 것으

로 나타나 여가의 질적 측면에서의 빈곤함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가정생활주기보다 (Ⅴ)에서 운동과 산책에 다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전업주부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많은 염려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요일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평일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변화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평일과 마찬가지로 (Ⅱ)단계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유무 및 자녀의 연령이 사회문화적 시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남편의 생활시간

(1)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남편의 생활시간의 배분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남편의 시간배분을 평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부인의 경우와는 달리 가정생활주기와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생리적 시간에 하루 9시간 24분에서 10시간 33분 가량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수입노동시간에 생리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하루의 80% 이상을 노동력재생산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생리적 시간과 노동력을 소비하는 수입노동시간에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양질의 노동력재생산을 위해 확보되어야만 하는 사회문화적 시간에는 2시간에서 3시간 15분정도의 시간만을 할애하고 있을 뿐이며, 가사노동시간에는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20분 내외의 매우 적은 시간만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남편의 생활시간 배분양상은 부인의 취업유무간에, 그리고 가정생활주기의 단계간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가정생활주기의 특성에 의한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Ⅲ)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생활주기에서 취업주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오히려 전업주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과 부인의 시간이 서로 대체적인 관계보다 보완적인 관계임을 보여준다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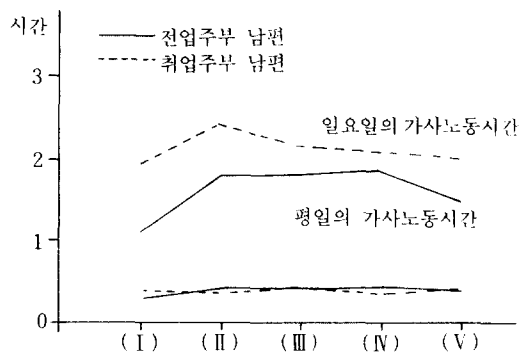
수 있다. 또한 (Ⅲ)단계에서 취업주부 남편의 수입 노동시간이 전업주부 남편보다 적었으나 그 적은 양만큼 취업주부 남편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더 길고 두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은 동일한 21분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일요일의 경우는 평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생리적 시간에 할애하고 있으며 줄어든 수입노동시간 대신 사회문화적 시간이 6-7시간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남짓 증가할 뿐이지만 부인의 취업여부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적 시간도 다른 단계보다 (Ⅱ)단계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의 생활시간은 평일의 경우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휴일은 가사노동시간이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며, 특히 (Ⅱ)단계에서 취업주부의 남편은 그 절대량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주목하여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일의 경우 <표 3>,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그림 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부의 취업여부와 가정생활주기에 관계없이 거의 차이가 없으며, 20분내외의 매우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는 <표 3>,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일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띤다. 취업주부의 남편은 막내 자녀의 연령이 가장 낮은 (Ⅱ)단계에서 가장 높았다가 자녀의 성장과 함께 가사노동시간이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자녀돌보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단계에서는 남편이 비록 적은 가사노동시간이지만 자녀의 신체적, 비신체적 돌보기를 도와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전업주부의 남편은 취업주부의 남편보다 진주기에 걸쳐 30-40분 정도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자녀양육시간의 변화는 취업주부의 남편과 달리 자녀의 출산과 함께 (Ⅱ)단계에서 증가한 가사노동시간이 (Ⅲ), (Ⅳ)단계까지 계속되다가 (Ⅴ)단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다른 가사노동영역의 불규칙적인 상쇄효과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Ⅱ)단계에서는 자녀돌보기시간이 많지만 (Ⅲ), (Ⅳ)단계에서 줄어든 자녀양육시간 대신 시장보기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전체 생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부인의 취업에 의해 남편의 가사분담이 이루어져야하는 취업주부가정의 경우 평일 전체 노동시간은 부부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사노동시간과 수입노동시간간의 대체관계는 부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게다가 휴일인 일요일에는 취업주부가 4-6시간 이상을 노동시간에 할애하는데 반해 남편의 전체 노동시간은 부인의 절반정도로 나타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녀간의 시간분배상의 불균등문제, 즉 취업주부의 이중부담문제를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립적인 생활기반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부가 사회적 노동의 책임을 공유하는 취업주부가

정에 있어 부부간의 노동력소비와 재생산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부부간의 생활시간배분면에서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 근로자가정부부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며 남편이 직업을 가진 취업주부가정과 전업주부가정 284쌍을 대상으로 질문지와 시간일지표를 통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사회문화적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수입노동시간과 서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는 어린자녀를 가진 주부의 취업을 중단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여성 노동력의 지속적인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취업주부는 제약된 시간하에서도 자녀의 비신체적 돌보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자녀와의 정서적, 심리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리적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면시간은 (Ⅱ)단계에서 - (Ⅰ)단계를 제외하고 -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에서 오는 피로를 수면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노동력재생산과 소비간의 균형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도 (Ⅱ)단계에서 급증한 자녀양육에의 부담으로 장시간의 노동력소비와 육체적인 노동력재생산에만 급급한 불균형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노동력 재생산과 소비간의 균형문제는 가정생활주기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사회문화적 시간은 전업주부의 경우 탄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취업주부의 경우는 시간제약에 의해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의 경우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며, 일요일의 경우 다른 단계보다 (Ⅱ)단계에서, 그리고 전업주부 남편보다 취업주부 남편이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절대량은 부인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성장과 양육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남편의 역할을 규정지어온 '분리된 세계의 신화'(Kanter, 1977; 이현아, 1994, 재인용)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남녀간의 보다 균형있는 생활의 도모와 부인의 노동력 활용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가 많은 가정생활주기에서 자녀돌보기에의 참여는 남녀간의 평등한 생활시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 양자의 조화로운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균형있는 자녀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매우 적은 것은 일차적으로 장시간의 수입노동시간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면에서의 근무시간 단축이 우선 필요하며, 남편의 가사노동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가지 정책적 지원 - 예를 들면 출산휴가제도, 육아휴가제도, 융통성있는 근무시간의 조절 등 - 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오랫동안 남녀의 역할을 규정지어온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가정생활, 그 중에서도 다음세대의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자녀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확대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들어 많은 연구의 관심이 되고 있는 남성연구나 남성역할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는 남성의 자녀양육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1) 생활시간 배분면에서의 남녀평등의 관점은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이기영 외 3인, 199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많은 신세대 근로자들은 연장근무에 의한 초과수당보다는 더 많은 휴가를 원하며, 동료와의 술자리보다는 가족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남성들의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취업주부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자녀양육의 부담을 일차적으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통해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범주내에서의 지원에 의한 임시방편적인 문제해결방식은 자녀양육의 부담을 취업을 원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가정에서의 사적인 문제로 국한시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개별 가정이 감당하게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성 노동력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개별가정의 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방식을 넘어서서 공적인 차원에서 그 부담을 나누어지는 정책적인 배려 - 국가가 지원하는 탁아소의 확대, 기존 탁아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과 감독관리, 출산휴가·휴직 등의 보장,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고용확대 등 - 가 절실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공세권 외 4인,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 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 2) 김외숙·이기영·최은숙, 가정관리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0.
- 3) 남영주, 가족생활주기로 본 기혼 여성의 형제자매관계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4) 유영주,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984, 111-130.
- 5) 이경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6) 이기영 외 3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1994.
- 7) 이현아,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장시간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8) 임정빈,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1981.
- 9) 임정빈·임혜경,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4), 1992, 261-278.
- 10) 조희금,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지출행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984, 57-66.
- 11) 홍향숙,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2) 한경미,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광주시 주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13) -----,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14) Ehrenreich & English (Anderson, M. L., 재인용), 이동원·김미숙 역, 성의 사회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 15) Hafstrom, J. L., & Schram, V. R., Housework time of wives :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ERJ, 11(3), 1983, 245-255.
- 16) Olson, D. H. 외 6인, Famil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3.
- 17) Pleck, J. H.,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85.
- 18) Walker, K. E. & Woods, M. E.,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 C. :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6.
- 19) 森ます美, 第4章 妻の就業と夫妻の生活時間, 伊藤藤七ツ, 大野寛子, 森ます美, 大竹美登利 共著, 生活時間, 東京 : 光生館, 1983.